

중세 비잔티움 엘리트 여성의 정체성

- 7세기-12세기 인장위에 찍힌 이름과 칭호를 중심으로 -

황 원 호

목차

- I. 머리말
- II. 비잔티움 궁정 엘리트 여성
- III. 7-10세기 인장과 여성
- IV. 11세기 인장과 여성
- V. 12세기 인장과 여성
- VI.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권리 신장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¹⁾ 중세 비잔티움 여성들은 어떠했을까. 중세 비잔티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정신과 육체를 남성에 비해 나약한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관이나 군대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교회의 성례를 집행하는 일은 남성이 주도했던 반면 여성은 가사 일과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에서도 남성의 역할을 수행한 여성들은 존재했다. 특히 상류 여성들은 집안의 가장이 부재할 경우 남편을 대신해 세습 영지를 경영할 수 있었고 황실 여성은 황제를 대신해 직접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다.²⁾

중세 비잔티움 상류 여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가문의 세습 재산을 남자 형제와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고 결혼 후에도 이들의 상속 재산은 남편의 재산에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에 비해 우월한 경제적 권리를 소유한 비잔티움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부계나 모계의 성(姓)을 계승할 수 있었으며³⁾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여한 역할을 통해 가문을 부흥시키고 국가를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범주의 여성들을 중세의 권력 엘리트 여성으로 간주하게 된다.⁴⁾

그렇다면 비잔티움 권력 엘리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
- 1) 현대 권력 엘리트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 정덕진·김기훈 외 공저,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황금나침반 2006), pp.269-306 참고.
 - 2) 젠더, 섹스, 권력의 관점에서 본 중세 비잔티움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서 Liz James, "Men, Women, Eunuchs : Gender, Sex, and Power", John Haldon(ed), *Social History of Byzantium* (Blackwell 2009), pp.36-39, p.42 참고.
 - 3) 중세 비잔티움 귀족 여성의 작명 방식과 유산 상속에 관해서 J.-C. Cheynet, "L'anthroponymie aristocratique à Byzance", *Document de l'histoire sociale des mondes méditerranéens médiévaux*, M. Bourin et J.-M. Martin et als.(eds) (Rome, 1996), pp.53-80 ; Idem, *Aristocratie et héritage(XIe-XIIIe s) La transmission du patrimoine*, G. Dagron et J. Beaucamp(ed) (Paris 1998), pp.53-80. 참고.
 - 4) 비잔티움 권력 엘리트 여성들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Lynda Garland, *Byzantine empresses : Women and Power in Byzantium AD 527-1204*, (London and New York 1999), pp.1-228; Judith Herrin, *Women in Purple. Rulers of Medieval Byzantium* (London, 2001), pp.3-338.

문헌 사료에 기초한 기존 여성사 연구들은 여성의 정체성 변화를 추적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룰 수 있는 계층의 범위와 표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시대 서신이나 각종 증서 및 유언장의 진위를 보증하기 위해 발행된 인장에는 날인자의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이름과 직함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가 새겨졌다. 특히 현재까지 발견된 70,000여개 이상의 인장 중 약 100여 점의 인장에는 상류층 여성들의 이름, 가문 명, 칭호, 친족 관계, 초상 등이 시대에 따라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7-12세기 인장에 찍힌 다양한 신분 요소와 이미지를 통해 비잔티움 권력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를 조명하고자 한다.⁵⁾

II. 비잔티움 궁정 엘리트 여성

중세 비잔티움 황제가 거주하는 궁정은 제국의 모든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가 가장 집중된 곳이었다. 문헌 사료와 인장에는 이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들이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여성은 황후였다. 이들은 주로 ‘바실리싸’(basilissa) 혹은 ‘아우구스타’(augusta 라틴식)로 칭해졌다. 이 칭호는 바실레오스(basileos)와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여성형으로 황제의 아내가 수행할 수 있었던 역할에서 기인했다. 이들은 종종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들이 미성년일 경우 대개 아내와 어머니의 자격으로 황제의 직책을 대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2세기 콤네노스 황조 치세에 오면 황실 가문의 공주들 역시 “바실리싸”(basilissa)로 칭해졌다.⁶⁾

비잔티움 황실 여성들은 재혼을 통해 새로운 제위 계승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한편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황제의 직무와 권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동시대인들은 이러한 여성을 “오토크라토리싸”(αὐτοκρατορίσσα)로 칭했다. 이 칭호 역시 오토크라토르(αὐτοκρατορ)의 여성형으로 제위 계승자가 부재할 시에 스스로(단독으로) 황제의 전권을 행사한 여성을 의미했다. 비잔티움 역사에서 이러한 지위에 올랐던 여성은 두 명이 존재했다. 이들은 레오 4세 황제의 아내 **이네레 여제**(797-802)와 조에 황후의 동생 **테오도라 여제**(1055-1056)였다.⁷⁾

5) 비잔티움 인장학 연구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해서 황원호, 「인장에 찍힌 비잔티움 사회 : 정체성과 소통의 거울」, 『서양사론』, 112호(2012.03), pp.126-153.

6) 그것은 제국의 통합과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황실 여성들의 정략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의 지위가 높아진 결과였다. 예를 들어 알렉시오스 1세 황제의 딸 안나 콤네노스는 그녀의 송덕문에서 “바실리싸”로 표현된 반면 그녀의 남편 니케포로스 브리엔니오스는 보다 낮은 카이사르 계급으로 언급되었다. J. Darrouzes, *Georges et Démétrios Tornikès, Lettres et Discours* (Paris, 1970), pp.223, 227, 251, 275; 11-13세기 정략결혼을 통한 비잔티움 황실의 친족관계 형성에 관해서 A. Laiou, *Marriage, amour et parenté à Byzance aux XIe-XIIIe siècles* (Paris 1992), p.59-66.

7) 황후의 직함에 관해서 El. Bensammar Malamut, “La titulature de l’impératrice et sa signification. Recherche sur les sources byzantines de la fin du VIIIe siècle à la fin du XIIIe siècle”, *Byzantion*, XLVI(1977), p.243-291.

<그림 1 이레네 황후/여제 (제위 : 797-802)의 인장>

	<p>앞면 명각) : Eirinη basil[issη] (이레네 바실리싸)</p> <p>앞면 초상) : 이레네 여제의 흉상 ★ 위의 초상에서 황후는 진주로 엮은 이중의 펜던트(pendilia)가 양쪽에 부착된 황관을 쓰고 있다. 또한 상의에는 로로스(loros)를 입고 오른손에는 십자가 달린 구(globus cruciger)를 잡고 있으며 왼손에는 십자가 달린 황홀을 쥐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중세 군주들은 자신의 지배권을 대중에게 나타냈다.</p>
	<p>뒷면 명각) : 앞면과 동일 Eir[innη basiliss]η (이레네 바실리싸)</p> <p>뒷면 초상) : 앞면과 동일.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와 황후는 인장과 화폐에 자신의 초상을 새길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다. 그러나 양면에 모두 자신의 초상을 새기는 일은 드물었다. 위의 인장 양면에 새겨진 황후의 초상은 성상 복구 정책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권위를 높였던 이레네 여제의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p>
<p>출처 :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Museum, no.58.106.504. 직경 : 22 mm / 무게 : 5.00 g 인장 편람집: J. Nesbitt, <i>Catalogue of Byzantine Seals at Dumbarton Oaks and in the Fogg Museum of Art, V.6: Emperors, Patriarchs of Constantinople</i>, (Washington D.C.)no.36.5; G. Zacos and A. Vegliery, <i>Byzantine Leads Seals</i>, Vol.1, no.41.</p>	

< 그림 2 테오도라 여제 (제위 : 1055-1056)의 황금 인장(Chrysobulle) >

	<p>앞면 명각) :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Ἐμ]μανουήλ.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p> <p>앞면 초상) : 예수 그리스도의 흉상. 예수 그리스도는 왼손에 성경을 쥔 채 오른손으로 축복 안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머리 뒤에 십자형 후광(nimbus)은 신의 영적 권위를 상징 한다. 인장 소지자들은 신과의 영적인 소통 수단이었던 성상을 통해 신의 보호를 기원하거나 신뢰를 요청했다.</p>
	<p>뒷면 명각) : Θεοδώρα αὐγο[ύστα] 테오도라 아우구스타.</p> <p>뒷면 초상) : 테오도라 여제의 흉상. 십자가와 네 개의 꽃가지로 장식된 화려한 황관을 쓰고 진주 펜던트와 보석달린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상의에 로로스를 입고 오른손에는 황홀을 왼손에는 세 개의 잎사귀가 솟은 구(globus)를 함께 쥐고 있다.</p>
<p>출처 : BZS.1961.20 직경: 27 mm/무게: 15.21g/재질:황금 인장 편람집 : G. Zacos and A. Vegliery, <i>Byzantine Leads Seals</i>, Vol.1, no.81-821. ★ 황금 인장은 가장 권위 있는 증서(주로 면세 특권)를 발행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인장은 동시대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여성이 행사한 권력의 범위를 잘 보여준다.</p>	

한편 궁정에 정실 황후(바실리싸)가 존재할 경우 황제의 아내의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별도의 작위 ‘세바스토스’(sebastos)에 봉해졌다. 11세기 전반 로마노스 3세 아르귀로스 황제의 첫 번째 부인 헬레나, 콘스탄티노스 9세 모노막코스 황제의 부인 마리아 스클레리나 그리고 미카엘 7세 황제의 아내 마리아(알라니-그루지야 왕실 공주)는 이러한 관습에 따라 세바스토스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또한 황제의 아내 이외에도 그와 가까운 궁정 여성에게 별도의 칭호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파트리키아 조스테’(patrikia zoste 허리띠를 찬 파트리키오스)라는 작위인데 주로 황제의 장모에게 수여되었다. 9세기에서 11세기 동안 이 칭호의 수혜자는 남성 파트리키오스(patrikios) 계급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약 십여 명의 궁정 여성에게만 수여된 것으로 확인된다.⁸⁾

비잔티움 궁정에는 황실 여성 이외에 다양한 계급의 귀족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들의 지위는 주로 그들의 남편의 지위 즉 직책과 작위에 따라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직책이 테마 군사령관 즉 스트라테고스(strategos)일 경우 스트라테기싸(strategissa : 스트라테고스 부인)로 칭했고 남편의 궁정 계급이 마기스트로스(magistros)이면 마기스트리싸(magistrissa, 마기스트로스 부인) 혹은 프로에드로스(proedros)의 경우 프로에드리싸(proedrissa, 프로에드로스 부인)으로 칭했다.⁹⁾

III. 7세기-10세기 인장과 여성

비잔티움 인장 대 수집가 자코스(Georges Zacos)가 1972년에 편찬한 『인장 편람집』은 약 3000여 점의 인장 표본을 담고 있는데 이는 7-10세기 인장 연구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료로 간주된다.

<표 1 : 7세기-10세기 여성>¹⁰⁾

- 안나(Anna), 파트리키오스 부인(patrikia)(9세기말/10세기초)
- 에우프로지네(Euphrosyne), 히파토스 부인(hypatissa)(8세기 후반)
- 아나스타시아(Anastasia), 쿠비쿨라리오스 겸 파라코이모메노스의 부인(?)
(koubikoularia kai parakoimomene)(9세기 전반)
- 마리아(Maria), 카에사르의 딸(thygratri tou kaesaros)(9세기 전반)

8) J.-C. Cheynet, *Patricienne à Ceinture : une femme de qualité*, P. Henriot et A.M. Legras; (ed) *Au cloître et dans le monde : Femmes, hommes et sociétés (IXe-XVe)*, (Paris 2000), p.179-187.

9) 황후의 거처에는 황제의 내시부(cubiculum)와 유사한 별도의 부서와 공간(Gynaikonitis)이 존재했다. 여기에는 주로 황후를 섬기는 환관이나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내왕했다. 9-10세기에 저술된 궁정 상석 제도(탁티카) 교본에 따르면 어떤 여성이 파트리키아 조스테 작위에 봉해질 때 그녀는 황후 거처의 식탁 계원(préposé à la table)과 고관대작의 부인들, 즉 프로토베스티아리싸(protovestiarissa), 프리미케리싸(primikerissa), 코이토니티싸(koitonitissa) 그리고 쿠비쿨라리아이(koubikoulariai) 계급 여성들에게 금화 2파운드에 해당하는 행하를 주어야 했다 ; N. Oikonomides, *Les Listes de présence à Byzance aux 9e-10e siècle* (Paris 1972), p.57.

10) G. Zacos and A.Veglery, *Byzantine Lead Seals* (Basel 1972),no.1412,1718,1699,2673,3104,2675; Collection de l'Institut Français des Etudes Byzantines (IFEb) no.1217,2676; G.Zacos, *Byzantine Lead Seals*, vol.II (Basel,1972),no.1083.

- 마리아(*Maria*), 아우구스타 테오파노의 어머니(*metri Theophanous augustes*)(10세기)
- 테클라(*Thecla*), 프로토스트라토르 부인(*protostratorina*)(8세기말-9세기초)
- 익명(*Anonyme*), 에게해 테마 스트라테고스 부인(*strategissa*)(9세기 전반)
- 테오도라(*Theodora*), 콘스탄티노스 포르피로게네토스의 딸(10세기)
- 테옥티스테(*Theoktiste*), 파트리키아 조스테(*patrikia zoste*), 황후의 어머니(9세기 전반)

위의 명단에 나타난 여성들의 인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대 여성의 인장은 남성이 발행한 인장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그 시기가 제국이 아랍의 대공세에 맞서 군사적인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던 때였으므로 궁정 여성들의 활동은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명단에 따르면 두 명(마리아와 테옥티스테)은 황후의 어머니, 한 명(테오도라)은 적통 황제의 딸, 다른 한 명(마리아)은 황제 바로 다음 서열에 있었던 ‘카이사르’(kaisar)의 딸로 나타난다. 이 마리아의 아버지 카이사르는 테오페로스 황제(829-842)의 충신이자 사위가 된 알렉시오스 무셀로스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¹⁾ 요컨대 이 시기에 인장을 발행한 여성들은 주로 황제와 매우 가까운 최측근 여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위의 명단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직함에 따르면 ‘나는 누구의 **어머니**’ 혹은 ‘나는 누구의 **아내**’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시대 궁정을 지배했던 여성 **이레네 황후(775-78/797-802)**와 **테오도라 황후(830-67, 테오페로스 황제의 부인)**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의 인장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레네는 남편 레오 4세가 죽은 뒤 아들 콘스탄티노스 6세를 대신해 섭정을 수행했던 반면 테오도라는 테오페로스 황제의 사후 아들 미카엘 3세를 대신해 자신의 가문 일족들을 중심으로 섭정단을 이끌었다.

셋째, 위의 인장 대부분은 8세기 말과 9세기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 역시 **이레네 황후와 테오도라 황후의 섭정** 치세와 연관되었다. 두 황후들은 각각 남편 레오 4세와 테오페로스 황제의 성상 파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성상을 복구시킨 인물이었다. 동시대 문헌 사료에 따르면 이레네 황후의 손녀이자 후일에 **미카엘 2세 황제(820-829)의 두번째 부인**이 된 에우프로지네와 같은 여성은 매우 경건한 수녀 출신으로 스튜디오스 수도원장 테오도로스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 성상 복구에 대한 신념과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한다.¹²⁾ 에우프로지네의 이력을 비추어 볼 때 위의 인장을 발행한 여성들 역시 이레네 황후와 테오도라 황후가 성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궁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성들로 보인다.

넷째, 위의 여섯 번째 인장에 찍힌 여성 ‘**테클라**’와 그녀의 칭호 ‘프로토스트라토리나’(프로토스트라토르 부인)의 신분은 문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테오파네스 연대기』 속편에 따르면 8세기말 9세기 초에 테클라와 같은 이름의 여성이 나타난다. 그녀는 황실 친위군 사령

11) 알렉시오스 무셀로스는 테오페로스 황제의 딸 마리아와 결혼한 후 카에사르로 진급했다. 알렉시오스의 결혼에 관해 *Theophanes Continuatus*, ed. I. Bekker (Bonn, 1838), III, p.18.

12) 에우프로지네 황후의 경력에 관해 *Theophanes Continuatus*. (Bonn 1838), vol. II 24, pp. 78-79; III 1 (p.86); Theodorus Studita, *Epistulae*, ed. G. Fatouros, CFHB (Berlin/New York, 1992), p.514; A.P. Kazhdan-A.M.Talbot, “Women and Iconoclasm”, *Byzantinische Zeitschrift* vol.84/84(1992),p.391-408.

관 바르다스 투르코스(Bardas Turkos : 튀르크인)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레네 황후의 충신이었으며 803년 니케포로스 1세 황제에 대해 반란을 꾀하다 사망했다. 당시 아버지의 부하 장교 미카엘과 결혼한 그녀는 후일 미카엘 2세 황제(820-829)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다. 한편 스킨리체의 『연대기』에 따르면 813년 경 미카엘의 절친한 동료 레오가 먼저 황제 레오 5세(813-820)로 등극하자 테클라의 남편 미카엘은 프로토스트라토르(protostrator 황실 수석 마부장)직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전한다.¹³⁾ 위의 테클라의 인장은 바로 이 시기의 남편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요컨대 당대 튀르크 출신 최고위급 무관의 딸이자 아버지의 부하 장교와 결혼한 테클라는 아버지의 부관이 제위에 등극하는 데에 중개적인 역할을 한 첫 세대의 군벌 출신 귀족 여성이었다.

다섯째, 9세기 아나스타시아 인장의 칭호 ‘쿠비쿨라리아’와 ‘파라코이모메네’는 황실 내시부장(koubikouarios)직과 침실시종장(parakoimomenos)직을 겸했던 인사의 아내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당시 이 직책은 주로 궁정 환관들에 의해 수행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녀의 신분을 환관의 부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환관은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궁정에 여성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공간(Gynaikonitis)이 존재했던 점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6세 황제의 부인 테오도테의 전직 경력이 ‘쿠비쿨라리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아나스타시아는 9세기 전반 테오도라 황후의 주위에서 그녀를 섬겼던 측근 심복 여성 중 한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⁴⁾

IV. 11세기 인장과 여성

11세기 초 바실레오스 2세 황제(976-1025)의 치세에 비잔티움 귀족 가문들은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집중화되었다. 그 결과 후기 마케도니아 황실의 지배권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은 수도 문관 세력과 소아시아 군벌 세력으로 양극화 되었다.¹⁵⁾ 한편 바실레오스 2세와 그의 동생 콘스탄티노스 8세 황제(1025-28)가 치세에 제위 계승자(porphrogennetos)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자 황실은 황실의 공주이자 상속녀(porphrogenneta)들에 의해 제위를 이어갔다. 먼저 조에(1028-1055)와 결혼한 세 남편과 그녀의 양아들에 의해 제위가 보전되었고 그녀의 사후 동생 테오도라(1055-56)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전후해 궁정 여성들의 인장은 빈번하게 발행되었다.¹⁶⁾

13) 테클라의 신분에 관해서 Theophanes Continuatus vol.II, ed. I. Bekker (Bonn, 1838), p.78; 미카엘의 신분과 인장에 관해서 Ioannes Scylitzes, *Synopsis Historiarum*, ed.J.Thurn (Berlin,1973), p.13; G.Schlumberger, *Sigillographie de l'empire byzantin* (Paris,1884),p.358, no.2 참조.

14) 테오도테 황후의 출신과 신분에 관해서 Theophanes Confessor, *Chronographia*, ed. C. de Boor, 2 vols.(NewYork,1980) p.484; Mango and R. Scott,(ed and tr.),*The Chronicle of Theophanes Confessor* (Oxford, 1997), p.665.

15) 11-12세기 비잔티움 귀족가문의 발전에 관해서 A.Kazhdan-S. Ronchey, *L'aristocrazia byzantina dal principio dell'XI alla XII secolo* (Palermo,1997),pp,133-152 ; 10-12세기 비잔티움 벌족과 일족의 형성에 관해서 J.-C.Cheyne,*Pouvoirs et Contestation à Byzance* (963-1210),(Paris,1996),pp.261-286.

16) 조에와 테오도라 황후의 생애와 치세에 관해서 Lynda Garland, *Byzantine empresses : Women and Power in Byzantium AD 527-1204*, pp.136-157; pp.161-167참고.

<표 2 : 11세기 여성>

- 달라세나 안나(*Dalassena Anna*), 쿠로팔라테스 및 도메스티키오스 부인(*domestikissa*)(1057-1067)¹⁷⁾
- 달라세나 안나(*Dalassena Anna*)(11-12세기)¹⁸⁾
- 달라세나 에우도키아(*Dalassena Eudokia*), 프로에드로스 부인(*proedrissa*)(11세기 후반)¹⁹⁾
- 달라세나 에우페미오스(*Dalassena, Euphemios*), 프로에드로스, 스트라텔라티스 겸 타그마 군사령관 부인(*proedissa, stratelatissa kai doukaina*)(11세기 후반)²⁰⁾
- 달라세나 이레네(*Irene*)(11-12세기)²¹⁾
- 달라세나 마리아(*Maria*), 프로토프로에드로스 부인(*protoproedrissa*)(11세기 후반)²²⁾
- 두카이나 안나(*Dukaina Anna*), 마기스트로스 부인(*magistrissa*)(11세기 후반)²³⁾
- 두카이나 안나, 노벨리시모스 부인(*nobelissime*)(11세기 후반)²⁴⁾
- 콤네노스 에우도키아(*Kommenos Eudokia*), 마기스트로스 부인(*magistrissa*)(11세기 후반)²⁵⁾
- 구델리나 마리아, 스트라테기오스 부인(*strategissa*)(11세기 중반)²⁶⁾
- 카란테노스 안나(*Karantenos Anna*)(11세기 전반)²⁷⁾
- 쿠르쿠아세 헬레나(*Kourkouase Helena*), 베스티오스 부인(*bestena*)(11세기 후반)²⁸⁾
- 마크렘볼리티사 마리아(*Makrembolitissa, Maria*), 쿠로팔라티스 부인(*kouropalatissa*)(11세기 말)²⁹⁾
- 멜리세나 마리아(*Melissene Maria*), 파트리키아 조스테(*patrikia zoste*)(11세기 3/4분기)³⁰⁾
- 무사랍페나, 안나(*Mousaraphene Anna*), 타그마 군사령관 부인(*katapanissa*)³¹⁾
- 무셀리나 마리아(*Mouseline Maria*)(11/12세기)³²⁾
- 무셀리나 테오도라(*Mouseline Theodora*), 미스토그라포스 부인(*mistographissa*)(11세기 말)³³⁾
- 무잘로니사 테오파노(*Mousalonissa Theophano*), 아르콘토스 부인(*archontissa*)(11세기 전반)³⁴⁾

17) J.-C.Cheyne et J.-F.Vannier, *Études prosopographiques*, p.97.

18) Collection de Zacos (Bibliothèque National de France), no.204

19) Vente Münz Zentrum n.76 (10-12 November 1993), 인장 no.21.

20) *Ibid.*, p.93

21) Collection de Zacos (Bibliothèque National de France), no.236

22) J.-C.Cheyne et J.-F.Vannier, *Études prosopographiques*, p.101; I. Jordanov, *Corpus of Byzantine Seals from Bulgaria*, vol.2(Sofia,2006),no.155.

23)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Museum. no.47.2.1152.

24) Collection de Zacos (BNF),no.204;J.-C.Cheyne et J.-F. Vannier, *Études prosopographiques*, p.139.

25) G Zacos and A.Veglery, *Byzantine Lead Seals*, no.2700.

26) W.Seibt-M.Zarnitz, *Das byzantinische Bleisiegel als Kunstwerk*, no.1.2.4.

27) I.Jordanov, *Corpus of Byzantine Seals from Bulgaria*, vol.II,no.267-272.

28) *Ibid.*, no.241.

29) Ch.Stavrakos, *Die byzantinische Bleisiegel mit Familiennamen aus der Sammlung des Numismatischen Museums Athens* (Wiesbaden,2000),no.153.

30) W.Seibt, *Die byzantinischen Bleisiegel in Österreich I*, no.128

31) A.K.Wassiliou-W.Seibt, *Die byzantinischen Bleisiegel in Österreich 2 Teil*, no.270.

32) Collection de Zacos (BNF),no.100.

33) V.Laurent, *Le Corpus des sceaux de l'empire byzantine, tome II : L'Administration centrale* (Paris,1981),no.128.

34) G.Schlumberger, *Sigillographie de l'Empire byzantine* (Paris,1884),pp.432-433.

- 네스통기싸 마리아(*Nestongissa Maria*), 파트리키오스 부인(*patrikia*)(11세기 전반)³⁵⁾
- 라데네 이레네(*Radene Irene*), 파트리키아 조스테(11세기 후반)³⁶⁾
- 라데네 조에, 프로토프로에드리오스 부인(11세기 후반)³⁷⁾
- 스클레라이나, 에우도키아(*Sklailina Eudokia*), 프로에드로스 부인(11세기 후반)³⁸⁾
- 시나데네 헬레나(*Synadene Helena*)(11세기 후반)³⁹⁾
- 시나데네 마리아(*Synadene Maria*)(11세기 후반)⁴⁰⁾
- 시나데네 조에(*Synadene Zoe*)(11세기 말)⁴¹⁾
- 타로니티싸, 에우도키아(*Taronitissa Eudokia*)(11세기 후반)⁴²⁾
- 토르니카이나, 헬레나(*Tornikana Helena*), 파트리키아 조스테 및 쿠로팔라티오스 부인(11세기 말)⁴³⁾
- 트리폴리타나 헬레나(*Tripolitana Helena*)(11세기 전반)⁴⁴⁾
- 파르사쿰테네 안나(*Parsakountene Anna*), 파트리키오스 부인(*patrikia*)(11세기 전반)⁴⁵⁾
- 페고니티싸 이레네(*Pegonitissa Irene*), 마기스트로스, 베스타르케스 및 타그마 군사령관 부인(11세기 후반)⁴⁶⁾
- 페쿨리나 콘스탄티나(*Pekoulina Kostantina*), 프로토스파타리오스 및 토포테레티스 부인(*protospatharissa kai tototeretissa*)(11세기 전반)⁴⁷⁾
- 필로칼리나 에우도키아(*Philokalina Eudokia*), 프로에드로스 부인(11세기 말)⁴⁸⁾
- 친칠루카이나, 풀케리아(*Tzintziloukina Pulcheria*)(11세기 말)⁴⁹⁾
- 헥사키오니티싸 헬레나(*Hexachionitissa Helena*)(11세기 전반)⁵⁰⁾

위에 나열 된 11세기 여성들의 인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시사한다.

첫째, 11세기 여성들의 인장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동시대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이들의 역할이 활발해 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장 위에 여성의 출신을 나타내는 **가문명(성)**이 규칙적으로 새겨진 사실이다. 그것은 11세기 전반 마케도니아 황실의 제위가 황실의 마지막 혈통인 여성(*porphyrogenneta*) **조에와 테오도라**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유지됨에 따라 궁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증가한 결과였다. 한편 궁정 여

35) J.-Cl.Cheyne, "Les Nestongoi, un exemple d'assimilation réussie Acte du 1100e anniversaire de Preslav" (Preslav,1995),pp.261-262.

36) V..Bulgurlu-A.Ilasli,"Seals from the Museum of Afyon",*Studies of Byzantine Sigillography*, vol.8(2004),no.26.

37) G.Schlumberger,*Sigillographie*, p.573, n.4.

38)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Museum, no. 58. 106. 5739.

39) Ch.Stravrakos,"Sigillographische Beiträge zur Familie der Synadenoi", *Studies of Byzantine Sigillography*, vol.7(2002),p.178

40) Collection de Zacos(BNF) (Toul.75)

41) Ch.Stravrakos,"Sigillographische Beiträge zur Familie der Synadenoi", p.178

42) V.Laurent,"Sceaux byzantines inédits", *Byzantinische Zeitschrift*, vol.33 (1933),no.20.

43) J.-C.Cheyne,"Patricienne à Ceinture : une femme de qualité", p.184

44) I. Jordanov,*Corpus of Byzantine Seals from Bulgaria*, vol.2 no.729.

45) W.Seibt,*Die byzantinischen Bleisiegel in Österreich I*, no.127

46) Collection de Zacos(BNF),no.460.

47) J.-C.Cheyne et als.,*Les sceaux byzantines de la collection Henry Seyrig*, no.336.

48) W.Seibt,*Die byzantinischen Bleisiegel in Österreich I*, n.149.

49)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Museum no.58,106,777.

50) Collection de l'Institut français des Études Byzantines (*IFEB*),no.124.

성들의 입장에는 주로 부계 또는 모계의 성이 이전 시대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동시대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집중된 권문 세도가들 사이에 통혼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출가한 귀족 여성들 역시 출신 집안의 **상속녀의 지위와 특권**을 더욱 강조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11세기 귀족 가문의 상속관행에 따르면 딸은 남자 형제들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았다. 결혼할 시 지참금 형식으로 분배된 여성의 재산은 결코 남편의 세습 재산과 혼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과부가 될 경우 지참 재산은 자식들에게 상속되거나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친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재혼을 할 경우 이들의 재산은 새로운 남편의 집안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귀족 여성들은 부계 또는 모계 가문과의 **혈연적 연대의식 혹은 소속감**을 나타내는 성(姓)을 인장 위에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⁵¹⁾

둘째, 남편의 칭호를 따르는 관습은 11세기에도 역시 존속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로 남편의 '직책(*axia dia logou*)' 보다는 남편의 '작위(*axia dia brabeion*)'를 더욱 빈번하게 강조했다. 그것은 작위가 직책보다 안정된 지위와 고정된 현금 수입(*roga*)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남편의 직책이 귀부인들의 입장에 새겨지는 경우 그것은 대부분 군관직과 연관되었다. 즉 타그마군 사령관 부인(*doukaina*), 테마 스트라테고스 부인(*strategissa*), 타그마군 장교 부인(*topoteretissa*), 황실 경호단장 부인(*manglabitissa*)과 같이 주로 남편이 군대에서 수행한 직무와 서열을 강조했다. 반면 수도 문관 집단 내에서는 그러한 관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동시대 상류 귀족 사회에서 문관직 보다는 무관직이 좀 더 세습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셋째, 입장을 날인한 여성들은 대부분 1028년에서 1081년 마케도니아 황실의 지배권이 쇠퇴하던 시기에 새로운 지배 가문을 창출하기 위해 **대권 경쟁에 참여한** 가문의 후예들이었다. 그 중 **달라세노스, 두카스, 시나데노스** 가문 여성들은 당대 가장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 세력(*factions*)을 대표했다. 그 중에서도 달라세노스 가의 여성들 특히 안나 달라세나의 입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사키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의 제수이자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나 달라세나(1030-1101/2)의 생애와 특별한 경력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안나의 생애와 경력은 그녀의 손녀 안나 콤네나와 손녀 사위 니케포로스 브리에니오스의 저서에 잘 나타난다. 안나 달라세나는 1030년대 샤론 가의 알렉시오스와 달라세노스 가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그녀는 소아시아 군벌 세력의 대표 콤네노스 가의 요아네스와 결혼해 슬하에 다섯 아들(마누엘, 이사키오스, 알렉시오스, 아드리아노스, 니케포로스)과 세 명의 딸(마리아, 에우도키아, 테오도라)을 두었다.⁵²⁾ 남편 요아네스는 이사키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의 동생으로 당대 최고의 사령관직에 있었다. 1059년 경

51) J.-C.Cheyne, "L'anthroponymie aristocratique à Byzance", pp.53-80 ; Idem, "Aristocratie et héritage(XIe-XIIIes)" pp.53-80 ; 다른 한편 동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행정 관료직을 통해 승진한 중소 귀족 가문들이 증가한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P.Stephenson, "A Development in Nomenclature on the Seals of the Byzantine Provincial Aristocracy in the Late Tenth Century", *Revue des Études Byzantines*, vol.52 (1994), pp.184-211.

52) Nicephoros Bryennios, *Nicephori Bryennii historiarum libri quattuor* P.Gautier(ed et tr.), (Bruxelles, 1975), p.79; 안나 달라세노스의 생애에 관해서 Lynda Garland, *Byzantine empresses : Women and Power in Byzantium AD 527-1204*, pp.187-192 참고.

이사키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가 수도 문관 세력의 압력과 사냥 중 입은 부상으로 제위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하자 동생 요아네스에게 자신을 이어 제위에 오를 것을 제안했다. 이때 안나 역시 남편에게 가문의 부흥과 제국의 안위를 위해 형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야심이 없었던 요아네스는 이를 거절했다.⁵³⁾ 결국 콤네노스 가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수도 문관 귀족의 대표 두카스 가의 콘스탄티노스가 제위에 오르자 안나는 몹시 실망한 나머지 두카스 가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다. 두카스 가문이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세명의 딸들을 당대 가장 출중한 군벌 가문의 아들과 혼인을 시키는 **가문 전략 (family strategy)** 을 통해 막강한 인맥을 구축했다. 즉 장녀 마리아를 타로니테스 가의 미카엘과 결혼을 시킨 다음 차녀 에우도키아를 멜리세노스 가의 니케포로스와 혼인을 시키고 막내 테오도라를 디오게네스 가의 로마노스의 아들 콘스탄티노스에게 시집을 보냈다.⁵⁴⁾

그런데 1067년 남편 요아네스 콤네노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과부가 된 안나는 집안의 어린 아들들을 대표해 자신이 직접 집안을 이끌게 되었다. 이 후 그녀는 두카스 가문의 권력 승계를 저지하기 위해 또 다른 소아시아 군벌의 대표자 로마노스 디오게네스의 대권 도전을 지지했다.⁵⁵⁾ 1068년 로마노스가 제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하자 그녀는 궁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장남 마누엘을 황제의 총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071년 셀축 튀르크족과의 전투에 참가한 마누엘 역시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직접 전장으로 달려간 안나는 아들의 주검을 확인하고 매우 애통해 했다고 전한다. 이에 안나는 그의 죽음을 보상하고자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삼남 알렉시오스(후일 알렉시오스 1세 황제)를 전신으로 보냈다. 당시 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던 알렉시오스는 급히 만찌케르트 전신으로 달려가지만 어머니를 위로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듣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⁵⁶⁾ 이러한 행동은 동시대 안나와 콤네노스 일족들이 얼마나 가문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관해 잘 보여준다.

1071년 가을 만찌케르트 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두카스 가의 미카엘 7세가 로마노스 황제를 대신해 제위에 오르게 되자 안나는 이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위 탈환을 준비했던 로마노스 디오게네스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로마노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중도에서 발각되어 그녀는 반란의 주동자로 몰리게 되었고 1072년 봄 아들과 함께 '왕자의 섬'(Prinkipo)으로 추방되고 말았다.⁵⁷⁾ 우여곡절 끝에 그녀와 일족들은 로마노스 황제가 처형된 이후에야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편 1078년 경 어느덧 성년이 된 삼남 알렉시오스는 미카엘 7세 치세에 반란이 일어나자 황제파에 가담해 두카스 황실의 제위를 지켜주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한 알렉시오스는 두카스 황실의 실질적인 권력자 카이사르 요아네스의 눈에 들었고 결국 그의 손녀 이레네 두카이나와 혼인을 맺게 되었다. 두카스 가에게 적대감이 많던 안나는 당시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53) Nicephoros Bryennios, *Nicephori Bryennii historiarum libri quattuor*, pp.80-82.

54) *Ibid.*, p.85.

55) *Ibid.*, p.84 ; P.Gautier, L'Obituaire du typikon du Christ Sauveur Pantocrator, *Revue des Etudes Byzantines* vol.27(1969), p.248.

56) Anne Comnene, *Alexiade* I, B.Leib (éd),(Paris,1967),p.9.

57) Nicephoros Bryennios, *Nicephori Bryennii historiarum libri quattuor*, p.128-130.

이 혼인은 콤네노스 가문의 운명을 좌우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1078년 또 다른 소아시아 군벌 세력의 대표자 니케포로스 3세 보타네아테스가 반란으로 미카엘 7세를 퇴위시키고 황제에 오르자 안나는 두카스 가와의 인척 관계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이번에는 손녀이자 장남 마누엘의 딸을 니케포로스 황제의 손자와 결혼시키는 한편 자신의 아들들을 제위에 세우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했다. 당시 매우 연로한 상태에 있었던 니케포로스 3세 황제를 퇴위시키는 계획에 동의한 그녀의 아들 알렉시오스와 이사키오스는 반란군을 동원하기 위해 소아시아로 떠났다. 그 사이 안나는 성 소피아 성당으로 피신해 그곳에서 일족들과 함께 안전 보장을 협상해야 했다. 당시 반란을 무마하기 위해 속임수로 협상에 임한 황제의 사절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대한 십자가 위에 황제가 맹세를 하지 않는 이상 성당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⁵⁸⁾ 그 후 안나의 요청은 관철되었으나 얼마동안 아들들과 함께 페트리온(Petron) 수도원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한다.⁵⁹⁾

마침내 1081년 군사 반란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당시 24세의 알렉시오스 콤네노스가 두카스 가문의 지지로 제위에 오르자 안나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했다. 즉 위하자마자 셀축 튀르크족의 소아시아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해야 했던 알렉시오스 황제는 어머니 안나를 ‘데스포이나’(despoina : 태후) 칭호와 함께 제국 내정을 다스릴 총책임자로 임명했다.⁶⁰⁾ 당시 황제는 황금 칙서(chrysobulle)에 안나의 결정은 곧 황제 자신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녀에게 전폭적인 신임과 함께 인사권을 포함해 모든 사법과 행정권을 위임했다.⁶¹⁾ 이때부터 안나는 제국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15년 동안 아들과 함께 국정 개혁을 수행했다. 이 시기부터 안나 달라세나가 발행한 공문서와 인장에는 ‘**황제의 어머니**(μητρι τοῦ βασιλέως)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새겨졌다.(아래 인장 참조).

한편 1096년 경 대외적인 위협이 사라지고 아들이 더 이상 원정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진 무렵 안나는 궁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들 알렉시오스 황제와 이레네 두카이나 황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안나는 자신해서 정계에서 물러날 결심을 하고 자신이 세운 판테포테스(pantepoptes)수도원으로 조용히 은퇴했다. 이곳에서 약 6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1101/2년 11월 1일 향년 71세로 긴 생애를 마감했다.⁶²⁾ 요컨대 이러한 안나의 생애와 이력은 동시대 권귀 가문의 **상속녀이자 미망인으로서 제국의 통합과 안녕에 기여한 동시대 엘리트 여성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8) Anne Comnene, *Alexiade I*, p.76-78

59) 판테포테스 수도원에 관해 R. Janin, *La géographie ecclésiastique de l'empire byzantin* vol. 3 : *les églises et les monastères* (Paris 1969), p.277 et p.397

60) 데스포이나 칭호에 관해 El. Bensammar Malamut, “La titulature de l'impératrice et sa signification”, *Byzantion*, XLVI (1977), p.286-287.

61) P.Gautier, “le discours de Théophylacte de Bulgarie à l'autocrator Alexis Ier Comnene(6 janvier 1088)”, *Revue des Études Byzantines* vol.20 (1962), p.118-119.

62) Anne Comnene, *Alexiade II*, p.21 : 1087년 경 안나 달라세노스는 자신의 후원으로 콘스탄티노플 북서쪽 금각만이 내려다보이는 네 번째 언덕에 판테포테스 수도원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이 수도원은 남성 수도자들의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사망하기 전 이곳으로 은퇴했다. 이러한 사례는 오랫동안 황제와 함께 제국을 이끌었던 황실 여성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R. Janin, *La géographie ecclésiastique de l'empire byzantine : l'Eglise et monastères*(Paris 1969), p.513-515. .

<그림 3-1 : 안나 달라세나 인장>

	<p>앞면) 명각 : <i>Μήτηρ Θεοῦ</i> (하나님의 어머니) 초상 : 오른 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입상</p> <p>★ 성모 마리아는 중세 여성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숭배한 수호성인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이미지는 11-12세기 여성들의 인장 뿐 아니라 이들이 후원했던 다양한 예술품과 교회 모자이크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안나 달라세나를 비롯한 동시대 귀족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입증한다.⁶³⁾</p>
	<p>뒷면) 명각 : <i>Θεοτόκε βοήθει τῇ σῇ δούλῃ Ἄννῃ κουροπαλατίσση καὶ δομεστίκισση τῇ Δαλασσηνῇ</i></p> <p>“성모여, 당신의 종 쿠로팔라테스 및 도메스티코스 부인, 안나 달라세나를 도우소서”.</p> <p>★위의 직함에는 다른 귀족 여성의 직함과 동일한 형식 즉 출신 가문명과 남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p>
<p>연대) 1067-1081 / 출처) Collection of Fogg Museum, no.732. / 직경) 31mm</p>	

63) 한편 비잔티움인들의 성모 마리아 숭배신앙은 서방 라틴 세계에도 전파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유럽 왕실에 시집 간 비잔티움 황실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특히 972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오토 2세와 결혼한 요아네스 1세 치미스케스 황제의 조카딸 테오파노는 결혼할 당시 비잔티움 수 많은 성물과 성상을 지참금으로 가져갔다. 결혼 후 그녀는 네이메헨, 아헨, 프랑크푸르트, 쾰른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짓고 동방의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 숭배신앙을 확산시켰다. 비잔티움 황실 여성들의 역할에 관해서 Judith Herrin, *Byzantium : The surprising Life of A Medieval Empire*, 이순호(역), 『비잔티움 어느 중세의 경이로운 이야기』(글항아리, 2007), pp.415-416 ; 중세 서유럽 여성의 지위 상승과 성모 마리아 이미지 출현에 관해서 차용구, 『중세여성의 발견 : 이브의 딸 성녀가 되다』(한길사 2011), pp.127-167 참고.

<그림 3-2 : 안나 달라세나 인장>

	<p>앞면) 4줄 비문 : <i>Κύριε βοήθει Ἄννη μοναχή τη Δαλασσηνη/</i> 주여. 도우소서. 안나 달라세나 수녀 겸.</p> <p>★ 1081년 이전 인장에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 및 성모에 대한 숭배와 도움을 요청하는 명각이 새겨진 반면 이 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강조된다. 특히 1087년 경 그녀가 세운 판테폼테스 수도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신앙적인 정체성 변화를 드러낸다.</p>
	<p>뒷면) 4줄 비문 : <i>τῆ μητρὶ τοῦ βασιλέως/ 황제의 어머니</i></p> <p>★ 1081년 이전에 발행된 인장위에 남편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된 반면 1081년 황제의 섭정치체 이후 발행된 인장에는 ‘황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즉 아들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1081년 이후 안나의 신분과 지위 변화를 잘 보여준다.</p>
<p>연대) 1081년 이후 / 출처) Hermitage Museum (St.Petesburg),no.6197</p>	

한편 위에서 언급한 명단에서 11세기 후반 두 명의 황제를 배출했던 두카스 가문과 인척 관계에 있었던 마크렘볼리티사 및 페고니테스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11세기 후반 두카스 가문 출신 황제 콘스탄티노스 10세는 마크렘볼리티스 가문의 에우도키아와 결혼했다. 에우도키아 가문 일족들은 1040년 미카엘 4세 황제에 대항해 두카스 가문과 함께 음모에 가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페고니테스 가문의 경우 이레네는 콘스탄티노스 10세 두카스 황제의 동생 요아네스 두카스와 결혼한 사이였다. 그녀의 인장에 찍힌 직함 ‘마기스트리오스, 베스타르코스, 타그마 군사령관 부인’은 1059년 이전에 남편의 높은 지위를 잘 보여준다.⁶⁴⁾

또한 시나데노스, 브리엔니오스, 콤네노스, 마니아케스, 멜리세노스, 토르니키오스의 가문명을 지닌 여성들 역시 동시대 소아시아 혹은 발칸에서 흥기한 엘리트 가문의 정체성과 그들의 영향력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위의 마리아 브리엔니오스의 인장은 1077-1078년 니케포로스 브리엔니오스가 미카엘 7세에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동일 가문의 상속 여성이 발행한 것이었다. 이처럼 위의 여성들이 발행한 인장들을 통해 우리는 동시대 황제권 경쟁에 적극 참여한 궁정 엘리트 여성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⁶⁵⁾

64) 두카스 가문의 대표적인 여성은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의 아내 이레네 두카이아였다. 황후 이레네 두카이아의 활동은 알렉시오스 황제의 치세 전반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어머니 안나 달라세노스의 섭정모후로서의 지위와 역할 때문이었다.

65) 당시 반란자 니케포로스 브리엔니오스와 인척관계에 있었던 바타찌나라는 여성은 라이데스토스에서 니케포로스를 지지해 반란에 참여했다. 또한 니케포로스 브리엔니오스의 어머니 쿠로팔라테스의 부인 안나 역시 음모에 가담했던 것으로 전한다; Miguel Atalíates, *Historia*, Pérez Martín(ed. et tr) (Madrid 2002),p.177,p.179-180; Nicephoros Bryennios, *Nicephori Bryennii historiarum libri*

브라카미오스, 라데노스, 모셀레스, 부르체스 가문 역시 11세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이었다. 특히 라데노스 가문은 10세기부터 이미 고관직 관료를 배출했으며 11세기에는 다수의 일원들이 로마노스 3세 아르귀로스 황제의 충신으로 활약했다. 특히 두 명의 라데노스가 출신 인물이 콘스탄티노플 시장(*eparchos*)직을 역임한 것으로 전한다. 또한 위의 명단에 언급된 여성 이레네 라데노스의 칭호 ‘파트리키아 조스테’는 라데노스 가문이 주로 콘스탄티노플 문관 귀족의 일원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필로칼레스 가문 역시 바실레오스 2세 황제 치세부터 많은 문무고관직에 진출했던 반면 크리소체폴리노스, 페쿨리노스, 메탈리노스, 트리폴리타노스 가문의 정체는 문헌 사료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가문들은 당시 불가리아에 정착한 토착 가문이었다고 생각된다.

V. 12세기 인장과 여성

1081년 니케포로스 3세 보타네아스를 제위에서 몰아내고 권좌에 오른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는 반란을 지지한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개편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인사들을 모두 궁정 최상위 계급에 승진시킴으로서 모든 권력을 콤네노스 황실 가문으로 결집시켰다. 특히 이러한 개혁은 황제의 어머니 안나 달라세노스의 섭정기(1081-1100)에 그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12세기에 발행된 여성의 인장에서는 11세기 후반 그녀의 가문 전략이 초래한 결과를 잘 보여준다.⁶⁶⁾

첫째, 12세기 인장에는 **세바스토스 부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원래 이 작위는 11세기 후반까지 황제와 가까운 친족 중 한 명 혹은 두 명에게 하사된 궁정 최상위급 칭호였다. 그러나 콤네노스 황조 치세에 황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모든 인사(형제, 사촌, 매제, 조카, 사위)들에게 이 작위를 부여함에 따라 콤네노스 제국의 권력과 부는 세바스토스 그룹을 중심으로 재 분배 되었다. 이에 따라 12세기 여성들의 인장 위에는 콤네노스-두카스 가문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이 황실 가문에 시집 온 며느리들의 정체가 잘 나타난다.

<표 3 : 12세기 세바스토스 부인>⁶⁷⁾

- 달라세나 이레네(*Dalassene Irene*)

quattuor, p.225,p.281.

66) 12세기 콤네노스 가문 여성에 관해서 B. Hill, *Imperial Women in Byzantium, 1025-1204 : Power, Patronage and Ideology* (London,1999); Lynda Garland, *Byzantine expresses : Women and Power in Byzantium AD 527-1204*, pp.180-224 참조

67)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no.85. 106.4133, no.58 106 4916, no.58.106. 1814; Collection of Fogg Museum, no.1208, no.251 ; Collection de Zacos (BNF) no.245, no.230-231 ; J.-C. Cheynet-J.-F. Vannier, *Etudes prosopographiques*, p.109 ; I.Jordanov, “Pecati na vizantijski s evasti ot teritorijata na Bulgarija”, *Numismatika i sfragistika* 5/2 (1998), no.34; Ch.Stavrakos, *Die byzantinische Bleisiegel mit Familiennamen aus der Sammlung des Numismatischen Museums Athens* (Wiesbaden,2000), no.216 ; V.Laurent, *Le Corpus des sceaux de l’empire byzantine*, vol.5/2, no.1468.I ; I.Jordanov, *Corpus of Byzantine Seals from Bulgaria*, vol.2, no.683; V. Laurent, *Le Corpus des sceaux byzantines*, vol.II, no.897.

- 달라세나 테오도라(*Dalassene Theodora*)
- 달라세나 크세네(*Dalassene Xene*)
- 브리엔니싸, 안나(*Bryennissa Anna*)
- 카미치나 크세네(*Kamytzina Anna*)
- 칸타쿠지나 마리아(*Kantakouzinad*)
- 콘토스테파니나 에우도키아(*Kontostephanina Eudocia*), 함대 사령관 부인
- 콘코스테파니나, 테오도라(*Kontostephanina Theodora*),
세바스토스 및 대 도메스티코스 부인(*sebaste kai megale domestikissa*)
- 라데네 이레네(*Radene Irene*)
- 시나데네 이레네(*Synadene Irene*)
- 타로니티싸 에우도키아(*Syrenade Eudokia*), 세바스토스 부인 및 수녀
(*sebaste kai monache*)

위의 명단에 따르면 12세기에도 여전히 달라세노스 가문 여성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안나 달라세노스가 자신의 일족들에게 막대한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실을 보여준다. 12세기 황실 가문에 시집 온 다른 가문 여성들의 개별적 생애는 동시대 연대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장에 찍힌 출신 가문명을 통해 우리는 이들은 이전 세기부터 콤네노스 가를 지지했던 집안의 후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동시대 황실 여성의 직함 위에는 황족과의 혈연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4 : 황족과의 혈연관계>⁶⁸⁾

- 콤네노스 마리아, 세바스토스 부인, **황제의 여동생**(*autadelphie tou basileos*)
- 콤네노스 마리아, 세바스토크라토르의 **손녀**(*engone tou aoidimou Sebastokratoros*)
- 콤네노스 안나, **카에사르의 딸**(*thygatros kaisarisses*)
- 콤네노스 안나, 세바스토크라토르 **안드로니코스의 딸**(*paid'Andronikou*)

또한 황실 남성의 인장 위에 어머니, 아내의 신분과 지위가 강조되었다.

<표 5 : 남성의 직함에 새겨진 황실 여성>⁶⁹⁾

- 안드로니코스 콤네노스, 마누엘 황제의 조카(*anepsis*),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에우도키아** (*ex Eudokias porphyrophyous ekphyeis rizes klados*)와 테오도로스 바타체스의 아들(*uios*)
- 알렉시오스, **콤네노스 가문 테오도라의 아들**(*paidos Komnenes eutuchous Theodoras*)
- 미카엘 스트립노스, 황실 함대 사령관, **황후의 여동생 테오도라의 남편**(*augustadelphes syzygon Theodoras*)
- 알렉시오스 콤네노스-팔레올로고스, 데스포테스, 황제의 사위(*gambros*), **황제의 장녀 이레네**(*protopaida Basilissan Eirenen*)의 남편
- 테오도로스 콤네노스-라스카리스, 데스포테스, **황제의 딸 안나의 남편**(*anaktopaidos syzygon Annes*)

셋째, 콤네노스 황실 공주의 인장에는 그들의 고귀한 신분 즉 황실의 '적법한 혈통'을 강조

68) G.Zacos and A.Veglery, *Byzantines Leads Seals*, vol.1,no.2712,2720,2722,2733,2730,2726,2749,2752,2753,2728,2729,2731.

69) *Ibid.*,no.2730,2726,2749,2752,2753,

하는 '포르피로게네타'(prophyrogenneta :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황손)이라는 칭호가 공식적으로 새겨졌다. 8세기 콘스탄티노스 5세 치세에 안정된 계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이 칭호가 콤네노스 황조기에 여성의 인장에 공식적으로 새겨진 사실은 동시대에 황실 여성들의 제위 상속권이 확고하게 자리 매김 한 사실을 입증한다.

<표 6 : 황실의 적법한 혈통 여성 : 포르피로게네타>⁷⁰⁾

- 마리아 콤네나(Maria Komnena), 포르피로게네타(porphyrogneta)
-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porphrophyne) 에우도키아 콤네나(Eudocia Komnena)
- 마리아 콤네나(Maria Komnena), 포르피로게네타(porphyrogneta), 알렉시오스 콤네노스 황제의 딸.

<그림 4 : 에우도키아 콤네나 인장>

	<p>앞면) 명각 : Μητηρ Θεοῦ 성모 마리아 초상 : 성모 마리아의 입상. 양팔을 벌려 기도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가슴에는 아기 예수를 품고 있다.</p>
	<p>뒷면) 명각 : Κόρη παναμώμητε, σὴν λατρῖν σκεποῖς πορφυροφυῆ Κομνηνῆν Εὐδοκίαν/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에우도키아 콤네나.</p> <p>★ 이 인장의 발행자는 요아네스 2세 콤네노스 황제(1118-1143)의 막내딸이자 테오도로스 바타체스의 아내 에우도키아 콤네나로 확인 된다. 그녀의 남편은 판세바스토히페르타토스 계급에 있었던 궁정 최고위급 인사였다. 한편 에우도키아의 인장에는 남편의 칭호는 없고 콤네노스 가문명과 황실 적통성을 나타내는 경구가 더 강조되었다.</p>
<p>연대) 12세기 중반 ; 출처 : G. Zacos-A.Veglery, <i>Byzantine Lead Seals</i>, no,2729,</p>	

70) *Ibid.*,no.2728,2729,2731:포르피로게네토스(porphyrognetos)라는 용어가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가 된 것은 750년 경 콘스탄티노스 5세 황제 치세부터였다. 당시 하자르 왕국 공주와 결혼한 콘스탄티노스 5세 황제는 제위의 안정된 승계를 보장하기 위해 대궁전 자주색 비단으로 둘러진 방에서 아들 레오 4세를 출산했다. 그 후 10세기 초 레오 6세 황제는 네 번에 걸친 결혼 끝에 조에 카르보눔시나로부터 아들 콘스탄티노스 7세를 얻었다. 이에 황제는 어렵게 얻은 아들의 합법적인 출생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 이 호칭을 더욱 강조했다. 그 후 이 호칭은 '적법한 혈통의 황손'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한편 11세기 전반 마케도니아 황실의 남자 계승자가 부재하던 시대에 황실의 마지막 적법한 혈통의 황녀(포르피로게네타)였던 조에와 테오도라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제위를 승계하면서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여성'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Judith Herrin, *Byzantium : The surprising Life of A Medeval Empire*, 이순호(역), 『비잔티움 어느 중세의 경이로운 이야기』(글항아리, 2007),pp.379-390 참고.

<그림 5 : 마리아 콤네나 인장>

	<p>앞면) 명각 : Μητηρ Θεοῦ 성모 마리아 초상 : 성모 마리아의 좌상. 무릎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p>
	<p>뒷면) 명각 : Μαρία πορφυρογέννητος ἡ Κομνηνή : 포르피로 게네토스 마리아 콤네나</p> <p>★ 이 인장은 마누엘 1세 콤네노스 황제(1143-80)의 장녀 마리아의 것으로 확인된다. 그녀는 1161년 헝가리 왕 벨라의 아들 알렉시오스와 약혼했다. 그러나 1169년 마누엘 황제의 아들 (알렉시오스 2세)이 출생하자 이들의 약혼은 파기되었다. 그 후 마리아는 1180년 르니에 드 몽페라(Renier de Monferra)와 결혼을 했다. 한편 그녀의 인장에도 남편의 칭호 보다는 자신의 혈통성이 강조되었다</p>
<p>연대) 12세기 후반 출처 : G. Zacos-A.Veglery, <i>Byzantine Lead Seals</i>, no.2728.</p>	

요컨대 황실 가문의 혈통, 황실과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와 직함 형식들은 12세기 두카스 가문과 함께 “황금 혈통(golden race)”으로 간주되었던 콤네노스 가문 여성들의 높아진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콤네노스와 두카스 가문 여성들과 혼인을 통해 선발된 가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부 그리고 명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대 황실 여성과 혼인을 한다는 사실은 제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우거나 혹은 황제로부터 개인적 후원을 얻는 경우 외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넷째, 세바스토스 보다 낮은 작위의 남편의 부인 혹은 남편의 작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여성의 인장 역시 나타난다.

<표 7 : 노벨리시모스 혹은 쿠로팔라테스 부인>⁷¹⁾

- 아크로폴리티싸 마리아(Akropolitissa Maria), 쿠로팔라티오스 부인(kouropalatissa)
- 아르기로폴리나 마리아(Argyropoulina Maria), 쿠로팔라티오스 부인(kouropalatissa)
- 독시아네 마리아(Doxiane Maria), 쿠로팔라티오스 부인(kouropalatissa)
- 카란테네 마리아(Karantene Maria), 쿠로팔라티오스 부인(kouropalatissa)
- 카스타모니티싸 마리아(Kastamonitissa Maria), 쿠로팔라티오스 부인(kouropalatissa)
- 라데네 에우도키아(Radene Eudokia), 쿠로팔라티오스 부인(kouropalatissa)

71)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Museum, no.47.2.1019, no.56.106.1987, no.56.106.2873; S.Šandrovskaja-W.Seibt, *Byzantinische Bleisiegel der Staatlichen Ermitage mit Familiennamen*.1.Teil, no.29, no.75; W.Seibt-M.Zarnitz, *Das byzantinische Bleisiegel als Kunstwerk*.(Vienne 1997), no.3.2.1.

- 로마이아 안나(*Romaia Anna*), 프로토쿠로팔라티오스 부인(*protokouropalatissa*)

<표 8 : 남편의 작위가 나타나 있지 않는 귀족 부인>⁷²⁾

- 알로피나 이레네(*Alopina Irene*)
- 안티오키싸 이레네(*Antiochissa Irene*)
- 안티오키사 페트랄리파이나 테오도라(*Antiochissa Petraliphaina Theodora*) (1200)
- 바타치나 마리아(*Batatzina Maria*)
- 이아시테네 이레네(*Iasitene Irene*)
- 칸타쿠제네 이레네(*Kantakouzene*)
- 스클라이네 테오도라(*Skleraina Theodora*)
- 시나데네 예우도키아(*Synadene Eudokia*)

위의 명단을 통해 볼 때 11세기 후반까지 한두 명의 황족에게만 하사되었던 궁정 최고위급 작위 노벨리시모스와 쿠로팔라테스가 12세기 초 알렉시오스 황제의 개혁과 함께 그 서열이 낮은 계급으로 전락한 가문의 여성들의 인장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궁정 최상위급 계급이 세바스토스를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류 귀족에게 쓸모가 없어진 이 작위는 낮은 서열의 중하급 관료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⁷³⁾ 또한 인장에 새겨진 날인자의 가문명 아크로폴리티싸, 알로피나, 안티오키싸, 아르기로폴로스, 로마이아 역시 11세기 마케도니아 황조 치세에 번성하다가 12세기 콤네노스 황실 가문과 혼인동맹을 맺지 못하고 서열이 낮아진 중소 귀족 가문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 출신 여성들은 지위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장을 발행할 만큼 사회·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본문에서 7세기-12세기에 발행된 여성의 인장을 분석하고 시대에 따라 변모해 온 비잔티움 엘리트 여성의 정체성을 조명해 보았다.

첫째, 바실리싸(*bassilissa*), 아우구스타(*augusta*), 세바스테(*sebaste*) 그리고 파트리키아 조스테(*patrikia zoste*)의 칭호들을 통해 동시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궁정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황제의 아내에게 부여된 칭호 바실리싸는 황제와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했던 한편 오토크라토리싸(*autokratorissa*)는 황실에 적법한 계승자가 없을 경우 황제의 권력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성 전제 군주를 의미했다. 또한 이러한 궁정 여성들은 인장에 이름과 직함, 그리고 성상과 초상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표현했다. 특히 황후의 인장에 새겨진 초상은 황제와 협력을

72) Collection de Zacos (BNF),no.847; Collection of Dumbarton Oaks Museum,no.55.1.4553; Collection de l'Institut Français des Etudes Byzantines,no.676; Kunstmuseum de Vienne (M K 361) ; W.Seibt, Skleroi, n.31 ; S.Šandrovskaja-W.Seibt,*Byzantinische Bleisiegel der Staatlichen Ermitage mit Familiennamen*.1. n.18; *Studies of Byzantine Sigilography*, vol.5,p.132.

73) N.Oikonomides, L'évolution de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l'empire byzantine au XIe siècle (1025-1118), *Travaux et Mémoire* vol.6 (1976),pp.125-152.

통해 혹은 황제를 대신해서 정부를 이끌었던 비잔티움 엘리트 여성의 **권력 이미지와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둘째, 7세기에서 10세기 아랍-무슬림들의 침략에 맞서 군사적인 방어에 몰두했던 시기에 궁정 여성들의 인장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났다. 특히 군인출신 황제들의 개인적인 권위에 의해 제위가 유지되었던 시기에 수도 콘스탄티노플 귀족 가문의 존재는 미약했고 귀족 여성들의 공적인 활동 역시 제한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레오 4세와 테오필로스 황제를 대신해 오랫동안 제국을 이끌었던 두 여성 이레네와 테오도라 황후의 개인적인 권위를 잘 반영하는 입장들을 볼 때 동시대 여성의 직함에는 주로 남성 조력자로서의 ‘**아내**’ 혹은 ‘**어머니**’의 신분이 강조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한편 동시대 여성들의 인장이 두 황후들의 섭정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성상 파괴 정책에 대해 성상이 복구될 무렵 황후의 정책을 지지했던 궁정 여성들의 존재감을 입증해 준다.

셋째 11세기 전반 마케도니아 황실의 제위가 황실의 마지막 두 상속녀 조에와 테오도라의 지위에 의해 유지되었던 시기에 귀족 가문 출신 여성들의 인장은 현저하게 급증했다. 동시대 인장위에 새겨진 귀족 부인들의 직함에 따르면 출신 가문의 **상속녀**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황실의 상속녀 조에와 테오도라 황후의 치세를 전후해 수도 콘스탄티노플 귀족 가문들 간에 정략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출가한 귀족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출신 가문의 연대 의식**이 강조된 결과였다. 또한 입장을 발행한 여성들의 출신과 경력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황실 가문의 권위가 약해진 시대에 귀족 여성들은 출신 가문의 일족과 함께 제위 계승 경쟁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콤네노스 가문이 새로운 지배 권력으로 상승하는 데 일등 공신으로 활약했던 안나 달라세나의 생애와 이력은 11세기 후반 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가문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녀의 탁월한 **가문 전략과 리더십**은 기울어진 집안의 정치적 입지를 바로 세우고 집안의 남성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통치의 기반을 닦은 동시대 엘리트 여성들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12세기 인장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11세기 후반 알렉시오스 황제와 함께 제국을 이끌었던 안나 달라세나의 가문 전략이 초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세기 세바스토스 부인들의 인장에 새겨진 다양한 출신 가문명은 콤네노스 황조 치세에 황실과 **훈인 동맹**을 통해 새로운 지배 권력 집단으로 부상한 가문의 후예들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12세기 황실 여성의 인장 위에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황녀’(포르피로게네타)의 칭호와 황실과의 친족 관계, 그리고 황실 남성의 인장 위에 황실 여성의 신분과 지위가 동시에 새겨진 사실들은 12세기 비잔티움 엘리트 여성들의 높아진 지위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콤네노스 황조 치세에 친인척을 중심으로 세습적인 계승권이 확립됨에 따라 황실 가문의 여성들의 높아진 지위와 **제국의 통합**을 위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최고조에 달한 사실을 입증한다.